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CIÒ CHE INFERNO NON È (What Isn't Hell)

가제 : 지옥이 아닌 무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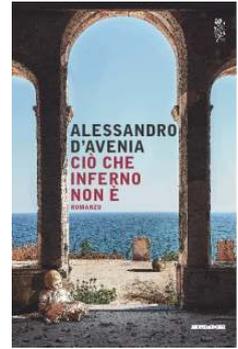
저자 : Alessandro D'Avenia

출판사: Mondadori

발행일: 2014년 10월 28일

분량 : 317 페이지

장르 : 소설



안락하고 평온한 삶 바로 곁에 존재하는 절망과 폭력의 삶, 그 경계를 건너게 된 소년

1992년 이탈리아 팔레르모. 여름이 다가오는 5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수영장에 모여 여름 방학을 자축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TV에 충격적인 영상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오반니 팔코네라는 판사가 마피아들이 설치한 폭탄에 차에 탑승한 상태로 암살당한 것이다. 마음 속에 늘 삶에 대해 늘 알고 싶은 것이 가득한 열일곱 소년 페데리코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옥스포드에서 열리는 여름 영어학교로 떠날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종교학 교수인 피노 폴리시 신부를 만난다. 페데리코가 사는 팔레르모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청소년 센터를 운영 중인 폴리시 신부는 페데리코에게 영국으로 떠나기 전, 같은 지역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돕지 않겠냐고 제안한다. 마피아의 천국, 절망의 공기가 지배한 암울한 빈민가 아이들이 변화를 꿈꾸려면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신부의 믿음에서 나온 요청이었다. 페데리코는 신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앞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팔레르모의 나머지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브란카치오라는 지역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페데리코. 그는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간 부모 세대 밑에서 크며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독려하려는 폴리시 신부의 노력에 동참한다. 지리적으로는 분명 자신이 살던 곳과 멀지 않지만, 지금까지 알던 세상과 판이하게 다른 삶을 보게 된 페데리코는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안전한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기존에 알던 모든 기준과 가치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 진짜 인생이 시작됐음을 직감한다. 청소년 센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거칠고 힘든 삶의 모습을 보고 용기와 밝은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소녀 루시아를 만난 페데리코는 브란카치오의 좁

은 골똥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새로운 열망을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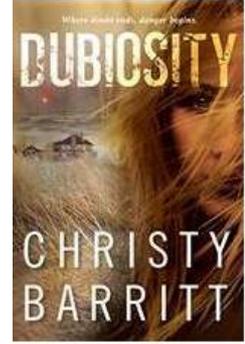
마피아의 절대적 권력과 암울한 삶 속에서 끝까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한 신부, 그 희망의 메시지
브란카치오의 얽히고 설킨 골목 곳곳은 정상적인 이름 대신 요상한 가명으로 불리는 남자들과 오직 마피아가 지시한 내용에 따라 모든 것이 통제되는 삶 속에서도 아직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은 사람들, 아이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폴리시 신부가 쉰여섯 생일날 결국 마피아에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바로 그 날부터 이 어두운 동네의 모든 희망이 페데리코의 작은 손에 맡겨진다.

“사랑이 없다면, 지옥을 만날게다. 사랑을 주면 지옥이 아닌 다른 세상을 만나게 돼.” 폴리시 신부는 페데리코에게 남긴 이 말처럼, 그리고 처음 페데리코에게 손을 내밀던 그 순간처럼 숨을 거두던 그 순간에도 자신을 죽인 마피아에게 마저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지옥에서 태어나면, 지옥 같지 않은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단다.” 커다란 신발과 큼직한 귀, 평온한 눈매로 기억되는 피노 폴리시 신부는 암흑과 같은 곳에서 등대이자 빛, 희망이었다. 작가는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이로 만났던 폴리시 신부님을 떠올리며, 너무나 상반된 두 세계가 존재하는 하나의 도시를 배경으로 질식할 것 같은 침묵과 암울함 속에서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용기가 주는 힘을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다.

<저자 소개>

알레산드로 다베니아(Alessandro D'Avenia)는 고전문학 박사로서 밀라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2010년 출간된 데뷔 소설 《Bianca come il latte, rossa come il sangue》는 21개 언어로 번역되고 2012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됐다. 이어 2011년 발표한 두 번째 소설 《Cose che nessuno sa》은 데뷔 소설과 함께 이탈리아 소설 베스트셀러 10위권에 3년 동안 머물르며 이탈리아에서만 100만 권 이상이 판매됐다.

제목 : DUBIOSITY
가제 : 의혹
저자 : Christy Barritt
출판사: Waterfall Press
발행일: 2015년 1월 13일
분량 : 338 페이지
장르 : 소설



지루할 정도로 고요한 해안가 마을에서 벌어진 실종과 살인 사건, 커져가는 불신과 의혹

아무 것도 겁내지 않던 취재기자의 삶을 다 잊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사바나 해리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사이, 하퐁이 절로 나올 정도로 고요한 체사피크 만 해안가 마을에 정착한 사바나는 처음 결심과 달리,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겨우 살아간다. 죄책감과 자꾸만 솟아나는 우울한 감정들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남편과 아기가 세상을 떠난 충격에서 벗어나기 못한 그녀는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가혹할 정도로 스스로를 학대하며 일부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겨우 그 엄청난 과오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체사피크 만에서 일하던 이민 노동자 한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 사바나를 침대 머리맡으로 부르더니 자신이 살해당했다고 은밀히 털어놓는다. 사바나는 깜짝 놀라지만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마티에게서 이민 노동자 두 명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자, 사바나는 마침내 이 이상한 일들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상한 사고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조용한 마을에서 불거지는 의혹들 때문에 사바나는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걱정되기 시작하고, 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도 불길한 변화가 시작된다. 사바나의 집에 하숙생으로 들어온 클리브 밀러라는 남자만 해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실 사바나는 체사피크 만으로 이사를 오기 전 하숙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내어 클리브의 연락을 받았지만, 낯선 사람과 함께 지내자니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 다시 취소하려 하지만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았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불쑥 찾아온 클리브가 당연히 반갑지 않았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바나의 말에 네 시간이나 걸려서 찾아왔고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간청하며 사바나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몇주 전 통화할 때만 해도 따분한 공부벌레구나, 생각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너무 어리고 다부진 외모에 상대방을 어쩔줄 모르게 만드는 이상한 힘까지 느껴졌다. 왜 이 외진 곳에 왔냐는 질문에 그냥 좀 다른 풍경을 보고 싶어서, 라는 묘한 대답을 하는 밀러. 사바나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딱 잘라 거절하지만, 그는 문이 닫히려는 찰나 힘으로 문을 잡으며 6개월치 방세를 선불로 내겠다고 하며 또 한번 간청한다. 절대 꺾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 사바나는 하는 수 없이 그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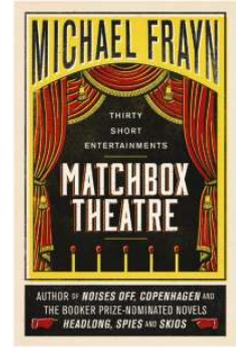
모두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숨바꼭질이 시작된다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사람에게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진 사바나의 앞에 점점 늘어만 가는 의혹들. 의심스러운 사람은 비단 클리브 한 사람이 아니었다. 살인과 실종, 그 이상의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사바나는 감추고 싶었던 기자의 본능이 살아나면서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악의적 존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갈수록 의혹만 깊어만 가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사바나는 믿음과 불신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운명이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다. 과연 그녀는 너무 늦지 않게 그 이상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까? 아니면 의혹 속에 잠식되고 말까?

<저자 소개>

크리스티 베릿(Christy Barritt)은 미스터리, 로맨틱 서스펜스 소설로 유명한 작가로 <USA 투데이>는 ‘무시무시하고, 웃기고, 열정적이고, 별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총 5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대프니 듀 모리에 상(Daphne du Maurier Award)’ 서스펜스, 미스터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로맨틱 타임즈 리뷰어 초이스 상(Romantic Times Reviewers’ Choice Award)’에도 두 차례 후보에 올랐다. 주요 작품으로는 《Love Inspired Suspense》 시리즈, 《Squeaky Clean Mystery》 시리즈 등이 있다.

제목 : MATCHBOX THEATRE
가제 : 성냥갑 극장
저자 : Michael Frayn
출판사: Valancourt Books
발행일: 2014년 8월 19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소설



조그마한 성냥갑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기발하고 색다른 서른 편의 이야기, 짧고 강렬한 단막극

진짜 성냥갑을 꼭 닮은 표지가 달린 책 속에 담긴 서른 편의 단편들. 대부분 한 두 명의 등장 인물이 전부인 열 페이지 안팎의 짤막한 이야기들에 수십 년 간 연극과 소설 작품을 써 온 작가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작가는 기존에 발표한 여러 작품들 안에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괴상한 느낌에 대해 다루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깊이가 한층 강하게 집약되어 독자들은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가 연극 대본인지, 그저 단편 소설인지 결정해야 한다.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 같으면서도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에게, 혹은 혼자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 서른 편의 이야기는 전화로 나누는 대화, 마이크에 대고 하는 말을 비롯해 교회에서, 공항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무대에서, 자동차에서, 병원 수술방까지 장소도 상황도 각양각색이다. 겉으로 보기엔 성냥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공연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시설에서 상연되는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이 가장 작고도 가장 큰 무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오래된 교회의 석관에 누운 두 구의 죽은 부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젊은 신도들을 모집하려고 록음악까지 전도에 활용하는 교회 목사 때문에 괴로워하고, 한 정치인은 신기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연설을 하던 도중에 주머니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를 듣고는 얼른 받아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다. 연극 무대도구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유명한 동물학자 데이비드 아텐버러가 연출한 자연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동물들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토로하고, 연극 ‘햄릿’의 유명한 장면들은 24시간 뉴스채널에서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특파원 보도처럼 소개된다. 허락되지 않는 사랑에 빠진 두 연인은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어떻게든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떠올리려 생각을 짜내고 있는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DB 473 항공편이 지금 71번 게이트에서 탑승을 시작합니다’라는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는 바람에 결국 어떤 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 엄청나게 긴 연주곡에서 딱 세 음표를 연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악기를 담당하는 오케스트라 연주자는 자신의 악기를 ‘아무도, 심지어 작곡가마저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를 가진 악기’라고 한탄하며 괴로워한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의 어려움, 인간 관계의 끝없는 혼란과 오해들, 코믹한 이야기에 담긴 철학

아주 고상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여러 편의 이야기들 중에는 정말 연극 무대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듯한 단편들도 많지만, 책 속 주인공들도 지적하듯 굳이 극장까지 와서 음료수 하나 사려고, 혹은 화장실을 쓰려고 지루하게 줄을 서지 않고도 집에서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는 색다른 기분을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다. 철학적이면서도 코믹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언어는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상대방에게 내가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혼란과 오해의 순간들과 같은 주제들이 심오하게 다가온다. 이보다 열 배는 더 긴 연극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재미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마이클 프레이인(Michael Frayn)은 <가디언>과 <옵저버> 기자로 일하다가 작가가 되어 수많은 연극, 영화 극본과 소설을 발표했다. 연극 'Noises Off'는 최근 영국의 최고 인기 연극작품 세 편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Copenhagen'은 1998년 '이브닝 스탠다드 상(Evening Standard Award)'에서 올해 최고의 연극상을 비롯해 2000년 '토니 상(Tony Award)'에서도 최고의 연극상을 수상했다. 소설 <<Towards the End of the Morning>>, <<Headlong and Spies>> 등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제목 : ANOTHER NIGHT, ANOTHER DAY

가제 : 또 하루의 밤, 또 하루의 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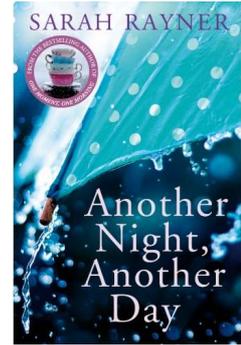
저자 : Sarah Rayner

출판사: Picador

발행일: 2014년 7월 1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 사람, 한 공간에서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맞이하는 위기의 순간들
어쩌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힘겨운 삶. 우리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들을 둘러싼 세상. 우리가 무심코 하는 선택도 다른 사람에게는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어느 정신병원에 모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선택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던 남편 사이먼이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의 흔적을 털어내지 못하고 늘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살아가는 카렌. 아버지까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으면서,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생활만으로도 버거운 그녀에게 아버지까지 돌보아야 하는 무거운 숙제가 더해졌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카렌은 더욱더 짙은 슬픔 속에 빠져 들어간다. 또 한 사람, 캘럼이라는 일곱 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에비. 종종 자폐증을 앓고 있는 캘럼은 잠시도 혼자 둘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다. 부정을 저지른 남편 글렌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캘럼과 매일 치뤄야 하는 에비의 사투와도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만 하니, 에비는 캘럼을 거의 홀로 도맡아 챙겨야 한다. 그렇게 갈수록 깊어지는 극단적인 외로움과 고립감에 에비는 나날이 힘겨워한다. 마이클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키워온 사업이 다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아이들은 잘 자라서 대학에 다니고 결혼 생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하지만, 마이클은 지난 세월 모든 것을 감내하며 열정을 바친 사업이 먼지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깊은 우울감에 빠진다. 오랜 시간 꺾꺾 누르며 겨우 버티던 각자의 삶에서 마침내 위기의 지점에 봉착한 카렌, 에비, 마이클. 세 사람은 정신의학적인 전문 치료를 위해 찾은 '모어랜드 클리닉'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다.

작가는 이 책에서 정신질환이 알츠하이머든 자폐증이든 혹은 우울증이든 종류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질병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든 주변 사람에게 찾아오든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다소 민감한 주제를 표면으로 끄집어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 우리가 지금 이런 정신질환과 아무 상관 없이 산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작가는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상세한 묘사와 생생한 사건들로 정신질환의 현 주소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한 불안감을 자극하여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묘한 힘을 발휘한다.

살면서 누구나 직면하는 곤경과 시험의 순간, 정신질환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가는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통 잘 드러내려 하지 않는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여주고 그것이 나의 일이 될지라도 결코 혼자 감내할 필요는 없다고, 사랑과 우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굳게 닫힌 클리닉의 조용한 방 안에서 카렌, 에비, 마이클 세 사람은 가장 내밀한 비밀을 털어놓고, 서로가 처한 상황을 함께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함께 많은 웃음을 나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세 사람 앞에 다시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지만, 이전 혼자서 버텨야 하는 고통은 없다. 이 소설에서는 남모르는 사이로 만났지만 한 팀이 된 세 명의 인물이 치유를 받고 치유를 도우며 강한 우정을 키워나가는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온갖 시험과 곤경에서 누구도 완벽한 면역력을 갖출 수는 없으며 바로 그 힘든 순간이 정신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세 주인공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점차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유쾌한 웃음과 더불어 누구나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사라 레이너(Sarah Rayner)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One Moment, One Morning》을 쓴 작가로 광고회사에서 오랫동안 카피라이터로 일하다가 소설 작가로 데뷔했다. 다루기 힘든 주제를 생생하게 그려 공감과 통찰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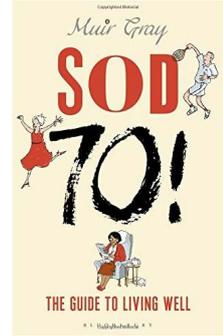
알아본다.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풀리는 사례, 연례 보고서 내용을 합리화하는데 주력하는 CEO들의 이야기 등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을 과도하게 칭찬하고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양한 심리에 대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가정 생활과 성별, 문화가 개인의 사고방식을 구성하고 행동을 형성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성과를 부풀리는 행동을 좌우하는지 설명한다. 3장에서는 성격과 성격 유형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성과와 비난을 부여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특정한 상황이 우리의 인식과 비난 혹은 칭찬에 반응하는 방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직장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칭찬과 비난이 직장문화에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6장은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한 조직의 리더가 칭찬과 비난을 할당하는 방식, 리더가 조성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구성원 개인과 조직 전체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마지막 7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각 개인과 조직의 리더가 비난과 칭찬을 보다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발전의 지연이나 실패보다 성장할 수 있는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영똥한 사람을 부적절한 시점에 비난하는 것, 그리고 일의 성과와 칭찬이 영똥한 사람을 향하는 것은 좌절과 분노를 낳고, 궁극적으로는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비난이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입을 굳게 닫고 해야 할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참신한 시각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칭찬과 비난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남탓이 만연하는 비난 게임의 유혹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긴장을 해소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중추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벤 데트너(Ben Dattner)는 뉴욕대학교 부교수이자 '대트너 컨설팅(Dattner Consulting)'의 창립자로 화이자, 노바티스, 마스터카드 등 유명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업무를 제공해 왔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 운영하는 일터에서의 마음가짐에 관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고 있다.

제목 : SOD SEVENTY
가제 : 골치 아픈 70대
저자 : Muir Gray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PLC
발행일: 2015년 1월 15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건강



몸도 건강하게, 뇌도 또렷하게, 70세를 넘어 90세 그 이상까지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방법

공중보건 분야에서 40년간 의사로 활동하고 영국의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인 국민의료보험(NHS)에서도 일했던 저자가 70세 이후의 인생을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모아 이 책에서 전한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확신하는 저자는 나이든 사람들이 마주하는 제한된 삶은 결코 노화가 원인이 아니며, 노인이 되기 전 살아온 방식이 빛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노인들이 겪는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근본적인 체력 저하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그리고 70세가 넘어도 예방할 수 있는) 질병, 그리고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잘못 설정한 삶의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60세부터 75세 인구가 이 책이 목표로 삼은 독자층이지만, 저자는 그 오래오래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중년기 후반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한다.

‘노화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제목의 1장에서는 숫자로 표시되는 나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화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진행성 질환의 발생 확률을 줄이는 것,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 문제와 기회가 가득한 삶을 늘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노인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성장 발달의 시기와 노화의 시기로 나뉘는 인생의 두 단계에서 사회적인 요소가 노화에 주는 영향, 건강이 나이를 불문하고 한 사람의 삶에서 가능성의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한다. 2장 ‘걱정마세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에서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의 정확한 의미와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운동법과 운동 강도, 그 밖에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재미있는 삽화와 함께 친절하게 안내한다. 특히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체조와 실생활에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 심리적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체력 약화,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노인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

3장 ‘신체 유지의 기술’에서는 노화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

을 악화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종종 질환의 초기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한다. 뇌와 생각(마음), 신체 각 기관별 노화와 건강한 상태로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다. 4장 '건강관리법, 현명하게 선택하고 활용하기'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과도한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각자에게 잘 맞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안한다.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방법, 70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하고 중요한 전반적인 건강관리법, 약을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양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마지막 5장 '건강한 삶'에서는 누구나 바라는 건강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확립할 수 있는 '마음운동'법 등을 소개한다.

70세가 가까워지면 별로 도움도 안되는 고정관념과 고집만 머릿속에 꽂 차는 경우가 많다. 당연한듯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 생애 후반기를 우울하게 보내는 대신, 노화에 대한 통념을 떨쳐버리고 얼마든지 힘찬 삶을 이어갈 수 있다. 80세, 90세, 그 이상 활기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뮤어 그레이(Muir Gray)는 영국 의학계의 주요 원로계 인사 중 한 사람으로 유방암, 자궁암 진단법을 최초로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다양한 스크리닝법 개발 업적을 인정받아 2005년에는 기사 작위를 받았다. 현재 'Better Value Healthcare'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제목 : PAPER MONEY COLLAPSE

가제 : 지폐의 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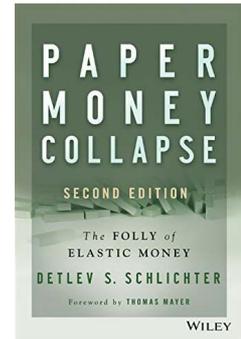
저자 : Detlev S. Schlichter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4년 7월 2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경제



19년 경력의 경제전문가가 전하는 지폐 제도의 폐해와 경제침체에 끼치는 영향

2011년 처음 발표되어 화폐, 화폐 정책에 관한 주류의 의견에 반기를 들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 현행 화폐제도에 관한 더 명확한 정보를 담은 개정판으로 다시 탄생했다. 현대 화폐제도의 중심에 있는 제한 없는 명목화폐(fiat money)와 구속 받지 않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경제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며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현대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명목화폐와 같은 탄력적 화폐가 아주 요긴하다고 말한다. 제대로만 활용하면 성장 속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힘이 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엄중하면서도 논리적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통해, 어느새 대세가 된 이러한 생각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분석한다. 저자는 그 어느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던 현재의 부채 수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거품, 과도하게 확장된 허술한 은행들, 저리용자에 대한 의존성 강화 등 소위 경제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국가에서 이와 같은 징후로 나타나는 경제 성장의 기형적 결과들은 모두 탄력적 화폐가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요상하게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탄생했다. 그렇게 생긴 지폐가 현재 화폐제도를 지배하고 있다. 먼 옛날에는 금이나 은이 아주 오랜 세월 자유시장의 화폐로 사용됐고,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은 탄력성과 거리가 멀어서 정치인, 관료, 은행가들의 통제권 바깥에 있었다. 자본가들이 소유하던 당시의 화폐는 정치와 아무 관련성이 없었다. 그 때도 은행들이 어음이나 예금을 통해 시장에 화폐를 추가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유시장이 화폐의 생산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에 걸쳐 화폐가 점차 정책의 대상이 되고 “탄력성”이 부여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급기야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미국 통화와 금을 교환하는 소위 ‘골드 윈도우(gold window)’ 정책의 정지를 선언하면서 금본위제 시스템은 붕괴되고 한계 없는 지폐의 시대, 자유로운 중앙은행의 시대가 열렸다. 저자는 상품화폐와 달리 탄력적이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화폐공급을 토대로 구축된 지폐 시스템이 왜 태생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 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명확한 조사결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아주 짧은 역사로 시장경제를 쥐고 있는 탄력적 화폐제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꼬집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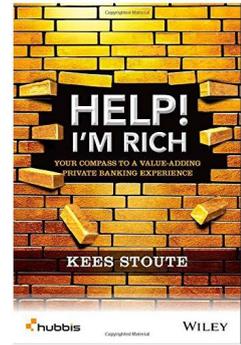
저자는 먼저 현대의 탄력적 화폐는 경기침체의 구제책이 될 수 없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화폐를 더 빨리 찍어내고 이율을 인위로 낮출수록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소비자 가격지표'로 불리는 가격의 상대적인 안정성이 경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탄탄한 지표라는 공통된 견해에 반박하면서, 이 같은 전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전례없이 불안정하고 중앙은행이 실책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대부분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왜 그런지 상세히 설명한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로 불리는 학자들을 비롯해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과 통찰,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들을 토대로, 유동성이 높은 현행 명목화폐 체계가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 이유와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전하고 화폐정책에 관한 최근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다양한 경로의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 소개>

데트레프 S. 쉘리스터(Detlev S. Schlichter)는 경제학자이자 투자전략 전문가로 J. P 모건, 메릴린치, 웨스턴자산운용 등 국제적인 금융시장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자 등으로 19년간 근무하며 전 세계 고객들의 자산 수십억 달러를 관리했다.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경제와 금융시장에 관한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제목 : HELP I'M RICH
가제 : 나 부잔데 좀 도와줘요
저자 : Kees Stoute
출판사: John Wiley & Sons
발행일: 2015년 1월 2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를 활용하여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법, 거대 자산가들을 위한 친절한 지침서

부자가 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진다. 특히 자산관리에 있어서 부유하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부유층의 금융자산을 관리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프라이빗 बैं킹', 이 책은 이 프라이빗 बैं킹 서비스가 소위 '큰 손'으로 불리는 고액 자산가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개인 자산관리 담당자와 어떻게 전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거대 자산에 따라오는 일반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자산관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बैं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 다양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사례들과 그래프, 도표, 짤막한 만화까지 더해져 프라이빗 बैं크의 역할과 장점을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구성했다. 더불어 자산을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각 경우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설명과 효과가 검증된 또 다른 자산 관리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소개되어 특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투자, 신용, 생명보험, 재산 신탁, 부의 심리학까지 크게 다섯 부분으로 정리된 이 책은 우선 '투자'와 관련하여 왜 부자도 투자를 해야 하는지, 각자의 자산 규모와 상황에 적합한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 리스크의 정의와 내용, 누가 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아본다. 이어 '신용' 편에서는 대출을 통해 다소 부담스러운 기회를 거머쥐는 방법을 설명하고,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적인 생명보험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한 뒤 부유층 역시 생명보험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다. 또 생명보험에 동반되는 전형적인 우려 사항과 해답을 설명하고, 프라이빗 बैं크와 생명보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재산 신탁'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재산 신탁의 정확한 의미와 역할,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자산 증식을 위한 도구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우려 사항은 무엇인지, 프라이빗 बैं크와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지 소개한다. 마지막 '부의 심리학'에서는 큰 재산이 한 사람의 정신적 성숙에 어떤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일명 '부잣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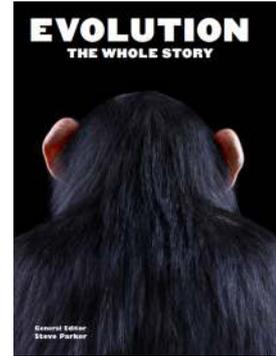
전문가의 도움으로 복잡한 자산 관리 문제를 똑똑하게, 수월하게 해결하고 대처하는 법

처음 부자가 된 사람, 원래 부자였지만 자산 관리를 처음 시작해보려는 사람 모두 자신의 재산이 프라이빗 뱅크를 만나면 정확히 어떻게 관리되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자산 운용 담당자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들을 친절하게 소개하는 한편,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무작정 맡기지만 말고 스스로도 전문가가 되면 재정적 결정의 순간에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한다. 돈은 많이 가질수록 이목을 끌게 되는 법이고, 일반적인 문제들도 더 까다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영리하게 활용하면, 그 복잡한 문제들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서 프라이빗 뱅크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키스 스타우트(Kees Stoute)는 프라이빗뱅킹 서비스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업체 'Sonam'의 설립자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19년 간 아시아 지역에서 학계, IT 분야, 프라이빗뱅킹 분야에서 일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허비스 재산관리 상(Hubbis Asian Wealth Management Award)'에서 아시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목 : EVOLUTION THE WHOLE STORY
가제 : 진화의 모든 것
저자 : Steve Parker
출판사: Quintessence
발행일: -
분량 : 576 페이지
장르 : 과학



풍성한 자료와 견해,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총망라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진화 이야기

생명은 맨 처음 어떻게 등장했을까? 현대 과학의 핵심 이론인 진화 이론을 심층 분석하고 가장 최근에 제기된 다양한 견해를 함께 제시한 이 책은 풍성한 사진 자료와 함께 초기 생명체, 식물, 무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동물까지 각 생물이 진화한 발자취를 생생하게 설명한다.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조개 껍질의 모양, ‘턱’이라는 구조가 처음 생긴 경위, 땅과 공기의 생성, 공룡이 지배한 시대, 대량 멸종 사건들, 포유류의 등장, 그리고 인간의 등장까지 진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총망라한 책이다. 각 장마다 생물군의 전체적인 진화 과정을 소개하고 특히 새롭거나 중요한 하위 생물군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지구에 어떻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지, 해부학적 자료와 현재 남아 있는 진화의 흔적을 근거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구축한 획기적인 진화 이론도 만날 수 있다.

1장 ‘초기 생명체’에서는 지구라는 행성의 첫 등장부터 시작하여 지구에 최초로 존재한 생명체에 관한 이론과 증거, 최초의 화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2장 ‘식물’에서는 ‘식물’의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변천사를 짚어보고 수생 식물과 땅 위의 식물, 이끼와 양치식물, 나무의 등장과 씨앗의 발생, 최초의 꽃과 꽃이 보여준 영향력까지 신기한 내용이 가득하다. 3장 ‘무척추동물’에서는 바닷속 산호와 각종 벌레들, 절지동물, 삼엽충, 갑각류, 연체동물, 암모나이트와 패류(조개) 등 각양각색 지구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등장하여 살아온 수많은 생명체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4장 ‘어류와 양서류’에서는 척추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그 중간 단계에서 생물체의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최초의 물고기, 턱의 등장, 지느러미가 팔, 다리(앞발, 뒷발)로 자리잡기까지의 경로, 양서류의 시대와 대량 멸종의 시대를 상세히 설명한다. 5장 ‘파충류’에서는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초기 공룡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진 공룡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본다. 악어, 도마뱀, 뱀 등 우리에게 친숙한 파충류의 역사도 함께 제시된다. 6장 ‘조류’에서는 공룡과 조류의 관계, 날개의 의미와 초기의 형태, 화석에서 나타는 초기 조류의 습성이 나와 있다.

식물부터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등 유형별 진화 과정과 역사, 의미를 정리한 작은 백과사전 7장 '포유동물'에서는 공룡 시대 전후의 포유동물의 숫자와 특성 변화, 박쥐와 나무늘보, 고래를 거쳐 발굽을 가진 동물의 등장, 말, 코끼리, 설치류(쥐과동물)의 진화 이야기에 이어 육식 동물의 등장과 그 이후 등장한 새로운 포유동물들, 영장류의 출현 경로와 의미, 인간에 얽힌 이야기, 빙하기의 영향과 앞으로의 진화 전망까지 광범위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진화에 관한 지식 수준은 우리 인간의 삶 자체는 물론이고 기후 변화까지 자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진화학자, 화석 채취 전문가부터 고생물학, 고생태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기후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시한, 진화라는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주제에 대해 뜻깊은 정보와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화석, 골격의 형태, 과거 서식지 등에 관한 생생한 시각 자료와 역사적 흐름 순으로 정리한 진화의 과정, 그 증거의 발견 순서가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 소개>

스티브 파커(Steve Parker)는 자연, 생물학, 기술, 일반 과학 분야에 관한 책을 써 온 작가로, 런던 동물학회 선임 연구원이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250권이 넘는 책을 발표했다.

제목 : THE LOST LANDSCAPE

가제 : 잃어버린 풍경

저자 : Joyce Carol Oates

출판사: Ecco

발행일: 2015년 9월 8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전기



미국 최고의 작가 조이스 캐럴 오츠, 그녀의 작가 인생 전체가 형성된 유년 시절의 생생한 기억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작가이자 최고의 여성 작가로 꼽히는 조이스 캐럴 오츠. 그녀의 어린 시절 소중한 기억을 모은 전기가 완성됐다. 뉴욕 서부의 시골에서 생애 초반기를 보낸 친숙한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쯤 간직하고 있을 어린 날의 모험과 사랑의 감정을 일깨우고, 그 시기의 경험이 우리의 삶 전체에 형형색색 어떤 색깔을 입혔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오츠 역시 한 개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작가로서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유년기에 형성됐다고 이야기하고, 너무나 궁핍했던 시골에서의 삶은 자신의 후기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한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신만 나타나면 하던 이야기를 중단하고 늘 미소 띤 얼굴만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느꼈던 어린 캐럴. 그래서 어른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특히 할머니가 험가리어로 할아버지에게 분노에 찬 말을 던질 때면 혼자 어딘가로 숨곤 했다. 그럴 때마다 품에 꼭 안고 데려갔던 닭 한 마리. 캐럴은 부드럽고 따뜻한 닭의 깃털을 느끼면서 시골의 버려진 헛간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닭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좁은 우리에 갇혀 알만 낳는 기계처럼 취급되고 두 발이 묶인 채 피로 얼룩진 도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흔하지 않던 어린 시절의 닭들, 특히 화려한 붉은색 깃털을 뽐내던 닭과의 추억은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닭 그림만 보면 찌릿한 향수가 울컥 올라오게 만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된 죽음의 의미와 '해피 치킨'이라고 이름 붙인 소중한 닭 친구와 소녀가 너무나 좋아하며 먹었던 할머니의 닭 요리의 관계를 처음으로 알게 된 그 날의 충격과 공포, 충격을 받은 캐럴의 얼굴을 보면서 슬픔은커녕 조금은 웃고 있던 아빠의 얼굴을 그려낸다. 애지중지 마음을 나누던 동물이자 사람이 많지 않은 시골에서 마음 깊이 우정을 나누었던 해피 치킨이 '그저 어딘가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목숨이 끊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차오른 공포와 불신, 두려움의 감정들 등 오츠는 자신이 닭에게 붙인 '해피'라는 말이 갑자기 너무나 끔찍하다고 느꼈던 당시의 기분을 떠올리며,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당시를 기억한다.

작가로서의 살게 해준 소소하지만 소중한 사건들, 그 때의 감정들을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

아주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는 어린 날의 기억들 속에서, 작가는 꼬마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세상을 떠올리며 바로 그 시절부터 이미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작가의 젊은 시절을 바꾸어놓은 책이자 삶을 끝없는 모험이 제공되는 곳으로 바라보도록 이끈 작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작가는 농장에서 성장하며 힘들게 얻고 배웠던 인생의 교훈도 자신의 삶에 마찬가지로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정교할 만큼 세밀하게 묘사된 그녀의 기억과 감정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몰랐던 먼 옛날의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속을, 작가의 과거가 펼쳐진 어느 풍경 속을 함께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더불어 각자가 잊고 있던 어린 날의 시간과 공간도 동시에 펼쳐질 것이다.

<저자 소개>

조이스 캐럴 오츠(Joyce Carol Oates)는 1964년 첫 소설 <떨리는 가을에(With Shuddering Fall)>를 발표한 후 지금까지 10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 시, 산문, 비평, 희곡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춰 평단과 일반 독자들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있다. 현재 프린스턴 대학 인문학부의 석좌교수이며, 1978년부터 미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